

# 6·15공동선언 행사 따로따로

## 평화통일민족대회서 “정부 대북정책 전환” 촉구

6·15공동선언 10주년 남북 공동행사가 정부의 불허로 무산돼 남북에서 별도로 행사를 진행했다.

6·15공동선언실천 10주년 행사준비위원회는 6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남북한 ‘6·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를 개최했다. 1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남북간 대화 촉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6·15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회 김상근 상임대표는 평화통일민족대회 대회사에서 “1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거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줄 것을 통일부에 요청했지만, 일체의 남북교류를 금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불허를 통보해 남북이 각기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천민자본주의적 자세로 북을 대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폐기 처분하면서 긴장과 대립으로 냉전 북풍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극단주의적 한반도 정책을 바꾸는 길만이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백낙청 남북위원회 명예대표는 “6·15시대는 계속된다”는 제하의 격려사에서 “6·15공동선언을 오랫동안 무시하고 폄하해오던 우리 정부가 최근에는 선제적으로 교류단절 선언까지 하면서 남북교류가 전면적으로 단절된 것에 통탄과 분노를 한다”고 말했다. 백낙청 명예대표는 “6·2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이 민주, 평화를 선택한 것은 지난 10년간 국민생활이 6·15공동선언이 안



6·15공동선언 실천 남북위원회는 6월 13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기념행사를 위해 사용신청을 했지만 서울시가 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남북위는 재신청을 해서 서울 광장에서 행사를 어렵게 치렀다. 사진제공=6·15공동선언 실천 남북위원회

겨운 평화와 남북협력에 바탕으로 영위돼 왔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6·15시대가 이미 우리 삶의 일부로 체질화돼 과도화된 무리수를 두지 않고서는 6·15정신을 파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천안함 사건의 어뢰피격설은 대부분 관련 정보와 증거들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원인규명이 불가능 한 것임에도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뒤엎고 북에 대한 적대행위를 불사하겠다는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6·15공동선언실천 남북·북측 위원회, 해외총위원회는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성명”을 채택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평화와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민족 최고의 통일 공동선언 이행이 위협받고 있다”며 “6·15공동선언 이행에 역행하여 군사적 긴장과 동족 사이의 대결을 추구하는 행위는 단호히 저지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10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되지 못한 것은 동족 적대 정책에 원인이 있지만 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처장 진호 스님, 김상근 남북위원회 상임대표, 백낙청 남북위원회 명예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송영우 창조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상언 기자

# “남북 정상회담이 유일한 대안”

## 김대중평화센터 6·15공동선언 10주년 학술회의



6·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6월 15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진행됐다. 왼쪽부터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동현 고려대 일반국제관계연구원, 문정인 연세대 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방금 전 국방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휴전선에서 대남 비방 방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북한 백화원 초대소에서 거행된 송별 오찬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첫 마디 말이다. 그로부터 10년 후,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대립관계는 극에 다다르고 있다. “전쟁불사론” “엄중한 전쟁국면”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6·15공동선언은 10주년을 맞았다.

김대중평화센터는 6·15공동선언실천 10주년을 맞아 6월 15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남북 평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를 위한 새 출발”에 의견을 모았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대회에 문정인 교수(연세대, 제1·2차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정현백 교수(성균관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제2차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이 각각 △6·15남북공동선언 10년, 안보와 평화의 함의 △6·15공동선언과 화해 협력 ‘시민정치의 새 출발점에 서서’를 주제 발표했다.

기념행사 참가자들은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참가자들은 △남과 북 모두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말과 행동 자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를 시작하고, 개성공단 활성화에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이행 △제2,3의 천안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 이행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 한국 정부는 관계국과 협의하여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다시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 직후 기념만찬에는 민족공동체운동본부 부부장 명진 스님,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정세균 민주당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송영우 창조한국당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특별강연  
6·15선언 ‘한반도식 통일’ 계기 마련  
“6·15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그 기능과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면, 20세기적 냉전체제를 유지하려는 21세기 세계사의 후진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한반도 지역 전체주민의 투철한 역사 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강만길 교수는 특별강연에서 6·15남북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6·15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지역 남북주민들의 상호관계를 적대관계로부터 동족관계로 되돌려놓는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또 “한반도식 통일”이 시작되는 계기 마련, 국가연합 통일방안과 연방제통일방안의 합치점을 구함으로써 한반도식 통일방안 자체의 진전과 21세기 세계평화주의 실현의 주역으로 변모해 세계평화주의 정착에 이바지한 선언이라고 밝혔다.

강만길 교수는 “유감스럽게도 역사가 직선으로만 나아가지 않기도 한다”며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해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님을 인정했다.

강 교수는 공동선언의 뜻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 “세계가 지향하는 지역공동체 발달에 공헌하는 것이 역사의 길인지, 20세기의 냉전·대립·분쟁을 견지하는 것이 정권의 존재 이유와 권익을 유지하는 것인지 냉철히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인 교수  
6·15선언 남북관계 개선에 최선의 길  
문정인 교수는 앞으로의 통일의 방향은 “평화공존, 교류협력확대”라고 못 박았다. 이어 문정인 교수는 “1·2차 정상회담과 6·15, 10·4 공동선언을 통해 전쟁도 없고, 적화 통일도 흡수 통일도 아닌 공존공영의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분명히 보아왔다. 그러나 지난 두 정부가 이뤄 놓았던 남북 교류 협력의 토대가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는 최악이다”며 이

와 같은 상황을 ‘해피한 역사의 반전’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교수는 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뜻이 내포돼 있음을 밝혔다.

“첫째, 신뢰구축의 공헌이 가장 크다. 6·15 공동선언 채택은 55년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둘째, 북한의 최전방 전략적 요충지인 개성에 개성공단이 들어서면서 평화의 공간이 확장됐다. 셋째, 남북이 주체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며 넷째, 국민의 안보의식 변화다. 안보공포증 수준의 국민들이 이제는 역사적으로 ‘안보 불감증’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줬다.”

또 문정인 교수는 현 정부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의 도덕적 절대주의 경향을 비판했다. 문 교수는 “북한 체제를 악의 축으로 간주하고 잘못을 저지른 북한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도덕적 사명감을 여러 대목에서 볼 수 있으며, “그 밖에도 ‘남북공동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종교연합모임요청에 따라 남북 종교교류추진협의회(2003년 결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남북종교인평화모임’ 등이 종교간 화합과 민족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현백 교수는 “사회문화 교류가 남북공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며 김대중 정부 이후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에 주목했다. 정현백 교수는 “평화·화해·협력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교류가 목표 실현의 가장 중요한 지렛대”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종교 분야의 인적 물적 교류가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종교 분야에서 인적 물적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1997년까지 연 1~2건에 불과하던 교류가 제3국을 통해 이루어진 만남이 1989년 6월~2005년 11월 201건의 접촉과 173건의 방북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2007년을 전후로 순수 종교적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 평양신학원, 불교교회 재건축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 밖에도 “남북공동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종교연합모임요청에 따라 남북 종교교류추진협의회(2003년 결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남북종교인평화모임’ 등이 종교간 화합과 민족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 교수는 6·15 공동 선언은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 평화 공존으로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교류가 실현되는 가장 바람직한 통일, “잘 다듬어지고 확실한 남북관계 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정현백 교수  
남북관계 개선에 “종교분야 활발” 눈길  
정현백 교수는 “냉전문화 해소, 남북갈등의 극복, 국민적 합의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문화 교류가 장애요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현백 교수는 평화 통일로 나아가 길에 대해 “시민사회, 국회, 정부당국이 협의기구를 구성해 담론의 구성과 확산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책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因緣에 긴 액운厄運암시록
-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 자녀액운 차귀탈 정단법
- \* 취직시험·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 관청·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 소송·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 도주·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착해론
- \* 산소·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백초스님  
상·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